



# 군종주보

2018년 10월 21일(제898호)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진교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진교,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출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내는 주일은 진교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 왕이 되면 흔히 일어나곤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반대파의 숙청입니다. 곧 왕이 된 사람을 반대하던 세력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방식은 어떠할까요? 오늘 1독서는 주님께서 재판관과 심판관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왕이 되어 다스리신다는 것인데, 하느님께서 왕이 되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느님을 반대하던 그 세력을 모조리 숙청하실까요?

1독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여기에는 반대파 숙청과 같은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과 창과 같은 무기를 부수어 생명을 일구는 보습이나 낫과 같은 농기구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또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선포하고 전교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교하면 좋을까요? 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믿음은 말과 행동이 결합된 것, 다시 말해 인간 전체의 삶입니다. 바오로 사도를 떠올려 봐도, 자신의 말과 행동이 같았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과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내용이 일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전교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전교한다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중 첫째는 가정입니다. 만일 1독서의 내용처럼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맞서지 않는다면, 또 서로를 공격하는 말과 행동을 거두고 그 자리에 존중과 배려를 채운다면, 이보다 좋은 출발이 또 있을까요?

2독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차별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교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신앙을 전해 준다는 것 역시 교리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나의 삶과 나의 생활을 보여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부대끼는 바로 그곳의 삶이 우리의 믿음과 일치할 때, 예수님께서 맡기신 전교의 사명은 성취될 것입니다.



장비오(비오) 신부  
백민(육군 9사단)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이사 2,1-5
- 회 답 송**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제 2 독 시** 로마 10,9-18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 복 음** 마태 28,16-20
- 영 성 제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김조이 아나스타시아



성인명: 김조이 아나스타시아 (金召史 Anastasia)

신분: 양인, 부인, 순교자

활동연도: 1789-1839년

김조이(金召史) 아나스타시아는 충청도 덕산의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 장성한 뒤 이성삼 바오로와 혼인하였다. 그리고 남편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김 아나스타시아는 원만한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천주교에 입교한 이후로는 이러한 성격 때문에 더욱더 모든 이에게 사랑받았다. 또 그녀의 가정은 모두가 열심히 신자로 성가정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녀는 언제나 교리를 실천하는 데 열심이었으며, 자녀들의 교리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마을 부인들의 교육에까지 유의하였으니, 그녀의 권면은 그들에게 아주 유익하였다.

1827년 정해박해 때에, 김 아나스타시아 부부는 다행히 박해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었다. 그들 부부는 피신한 곳에서 딸 이봉금 아나스타시아를 낳고, 선교사를 집에 모시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이때 그들 부부는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딸 이 아나스타시아는 첫영성체를 하였다. 그녀의 가정에 다시 박해의 위협이 닥쳐온 것은 1839년 기해박해 때였다. 박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김 아나스타시아의 남편은 집에 없었다. 그러나 이미 밀고된 상황이었으므로 피신을 하기는 해야만 하였다. 이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딸을 데리고 전라도 광주에서 귀양살이하는 홍재영 프로타시오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 같이 있던 교우들과 함께 체포되어 전주로 압송되었다.

전주에 도착한 뒤 김 아나스타시아는 여러 차례 신문을 당하였으나, 어떠한 위협과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주를 배반하고 남편이 있는 곳을 말하라.’는 강요를 줄곧 거절하였으며, 이 때문에 더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윽고 그녀는 감사 앞으로 끌려나가 다시 형벌을 받은 뒤에 옥에 갇혔고, 그녀의 어린 딸도 굳게 신앙을 증언하고 옥으로 끌려왔다. 어느 날 김 아나스타시아는, 딸 이 아나스타시아가 문초를 받고 옥으로 돌아오자 짐짓 딸의 신앙을 의심하는 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고문을 당하면 꾀꾀하게 건디어 널 힘이 없어 틀림없이 배교를 하게 될 거다.” 그러자 딸은 필쩍 뛰면서 아니라고 부정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시련을 당해도 신앙의 가르침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마침내 김 아나스타시아는 감사 앞으로 끌려나가 자신의 사형 선고문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다시 곤장을 맞고 판결이 내려올 때까지 옥중 생활을 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바라던 참수형을 당하지는 못하였으니, 옥중 생활에서 얻은 병과 형벌의 상처로 옥중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이때가 1839년 10월경으로, 당시 그녀의 나이는 50세였다.

### 복 음 록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 만선 기원

만선을  
기원하며  
이것저것  
장대에  
매달아  
알록달록 장식하고,  
만선을 기대하며  
이 길을 나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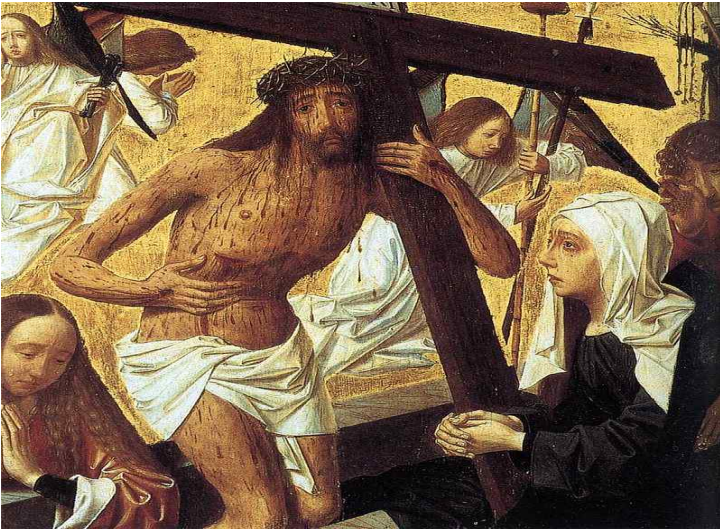
만선으로 돌아오길  
기대하며.

돌아올 때,  
님께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화이야기

수난의 예수님



헤르트헨 토트 싯트 안스, 1490년경  
나무 위 유희, 34.5cm x 24cm  
우트레히트 미술관, 네덜란드

수난의 예수님(Man of Sorrows)이라는 주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쳐 희생하신 수난과 구원의 문제를 극명하게 다루는 것이었기에, 한 장르로 정착되어 꾸준히 제작되었다. 특히 본 작품은 고통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슬퍼하시는 성모님(마리마 막달레나와 천사들도)을 함께 그려 넣어, 예수님과 성모님이 겪으시는 고통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예수님의 온몸은 매질과 같은 수난으로 인해 상처투성이이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들고 자신의 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천사들은 채찍, 못, 창과 같은 예수님의 수난 도구를 들고 있으며, 한 천사는 얼굴을 가리고 슬퍼하고 있다.

이 그림을 실제로 본 이들은 예수님의 호소하는 듯한 표정과 성모님의 슬픔으로 깊은 감정을 느꼈다고 적고 있다. 이 그림을 목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데에도 계속 죄를 지을 것이냐?”, “그러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이다. 또한 왠지 모르게 이 그림을 보고 답답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이 그림이 굉장히 얽은 공간에 그려졌기 때문이며, 이것이 우리가 무기력하게 수난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 자문하게 만든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김은혜(엘리시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 회원들을 위한 미사 -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해군본부 김준래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10월 21일(주일) 11:00
- 국장회의  
    때·곳: 10월 23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